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과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 www.facebook.com/philasewol

11월의 주요 활동

11월 11일(금) 저녁 7시 30분
'모국을 위한 동포 간담회'(첼튼햄 고향산천 식당)

11월 12일(토)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차 필라 촛불시위(첼튼햄 H마트)

11월 26일(토)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필라 촛불시위(첼튼햄 H마트)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 11월 19일(토)** 첼튼햄 H마트
- 11월 20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 11월 27일(일)** 체리힐 H마트
- 12월 2일(금)** 어퍼다비 H마트



16일 오전, 경빈엄마 전인숙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시위를 저지했다.

우리는 왜 박근혜의 7시간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의미한다.

왜 구하지 않았는가의 정점이자 상징이 바로 박근혜의 7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의 이상한 정황과 7시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중대한 이유도 아닌 어떤 사생활 때문에 7시간 동안 아무도 박근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며, 304명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는 작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특조위에 예산을 안주고 급기야 특조위를 강제해산시켜 버렸다. 얼마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서 7시간을 밝히라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1인시위를 하려고 하자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상 위해되는 내용이라하며 막았다.

그래서 7시간 동안 304명이 수장되었고, 304명의 생환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사생활엔 관심 없다.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304명이 희생될 때까지 왜 얼굴조차 볼 수 없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 윤민엄마 박혜영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35분경 해경이 도착 했을 무렵 세월호는 4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오전 8:49 세월호 사고발생



오전 9:35 해경 도착



오전 9:45

오전 10:00

세월호 사고발생 1시간 11분 만에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는 동안, 세월호 선내는 물이 차오르고 90도 까지 기울어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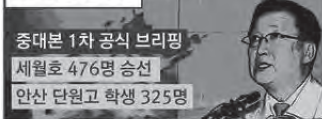
정부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

오전 9: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오전 10:00



중대본 1차 공식 브리핑
세월호 476명 승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오전 10시, 대통령은 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음

대통령이 받는 보고 유형



* 자료 출처: SBS 리포트+, 2016.11.16일자, "다가오는 특검 정국... '세월호 7시간'이 마지막 뇌관?" 중 발취

오전 10:13 해경 철수



오전 10:15 유선보고



박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지 13분 뒤인 10시 13분. 해경 측은 이미 구조 철수를 알렸고, 당시 세월호는 90도 까지 기울어 상태였다.

현재 여객선에 경찰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객선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약 80도정도라 경찰 다 나왔습니다. 현재 90도입니다.

승무원 말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한 2-3백명이 탔는데 많이 못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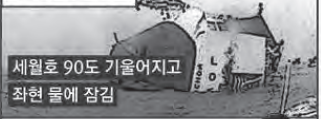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대통령 첫번째 지시

오전 10:15



세월호 90도 기울어지고 좌현 물에 잠김

첫 보고를 받고 15분 뒤, 대통령은 두 번째 '유선보고' 받음

대통령이 받는 보고 유형



오전 10:22

두 번째 보고 7분 만에, 대통령은 세 번째 '유선보고'를 받음

세 번째 보고를 받고 8분 뒤, 해경청장에게 직접 두 번째 지시를 내림



10시 22분 세번째 유선보고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 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대통령의 두번째 지시

오전 10:30



세월호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

오전 10시 대통령은 안보실장으로부터 첫번째 보고를 받음



대통령이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14차례의 보고가 있었지만, 10시 30분 두 번째 지시 이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14차례의 보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 박 대통령

중대본의 정확하지 않은 공식 브리핑도 계속됐죠.

오전 11:30

중대본 2차 공식 브리핑
"세월호 161명 구조"

낮 12:11

중대본 3차 공식 브리핑
"세월호 179명 구조"

오후 2:00

중대본 4차 공식 브리핑
"여객선 사실상 침몰"

오후 4:30

중대본 5차 공식 브리핑
"탑승자 459명 재확인,
구조 164명, 사망 3명, 실종 292명"

오후 5:15 대통령 중대본 방문

일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사고발생

오전 8:48

대통령의 첫 서면보고

오전 10:00

세월호 침몰

오전 11:18

사라진 7시간?

비서관 회의

오후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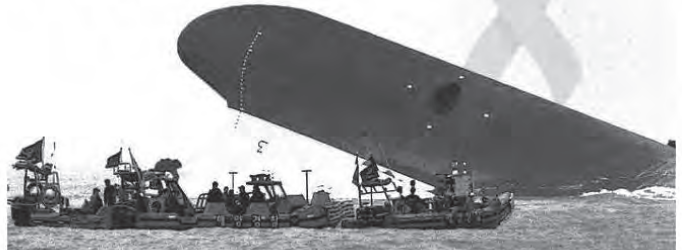
대통령 중대본 방문

오후 5:10



사라진 7시간

세월호 사고는 탑승자 476명 중 구조 172명, 사망 295명, 미수습 9명이라는 끔찍한 참사로 남았다.



끔찍한 참사로 남은 세월호 사고

오전 10:30

오후 5:15

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단 한차례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단 두 번의 지시만 내렸을까? 보고를 받기는 받았을까?

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단차례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사고가 확인된 상태에서 대통령님은 어디 계셨어요? 집무실에 계셨어요, 아니면 관저에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윤우덕 새경지민주연합 위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의 행적을 모르는 비서실장

대통령의 7시간은 지금 밝혀내지 않으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 향후 15~20년간 열람이 금지됩니다.

오후 5시 15분 대통령 중대본 방문

필라델피아 2차 촛불집회 11월 26일(토) 4시, 챌튼햄H마트

광화문과 17개국 50여 도시에 올린 '박근혜 퇴진' - 필라에서도 11일(금) 동포간담회, 12일(토) 1차 촛불시위 열려



이 와중에, 계속되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덮기

박근혜 정부가 서울 중구 저동의 4.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을 지난 주 철거했다. 정부가 11일 특조위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출입에 필요한 지문인식 시스템도 제한함으로써 특조위 조사관들이 기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철거가 진행된 11일, 특조위 권병민 상임위원은 “현 비상시국에도 세월호 연내 인양 실패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특조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덮어가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무실 철거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조사관들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명 시민은 박근혜 퇴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함께 외쳤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 모임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조사관들은 4.16연대 등 유가족 모임을 비롯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2일(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고, 이를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필라 지역에서는 11월 11일(금) 오후 8시 챌튼햄에 위치한 고향산천 식당에서 간담회가, 12일(토) 오후 4시에는 챌튼햄 모아쇼핑센터(H마트)에서 촛불시위가 진행되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해야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11일 간담회에는 필라세사모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계층의 동포들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시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해외동포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박근혜 해야 촉구 재미동포 공동시국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박근혜씨는 더 이상의 국가적 비극과 수치를 막기 위해 즉시 하야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할 것’과 야당, 언론, 검찰의 제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친일, 유신이 청산되어 고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향후 올바르게 건전한 시국토론이 필라 동포사회에서도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12일 촛불시위에는 유펜대학, 템플대학 등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한반도 사드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등 현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실정을 규탄하고, ‘무당정권 웬말이나,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필라지역 촛불시위는 오는 26일(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진행된다.



세계 각지의 '박근혜 퇴진' 시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필라델피아, 뮌헨, 파리, 베를린)